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of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고 보 선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 수 임 정 빈

Dept. of Social Welfare, Cheju College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Full-Time Lecturer : Bo Sun, Koh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Hanyang Univ.

Prof. : Jeong Bin, 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a causal model of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The data of this research was obtained from 660wives who lived in Seoul, 1996.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younger managers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cohesion and adaptability between spouses. For the unemployed wives, locus of control over managers' financial situation and perception of gap between standard and level of living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personal subsystem.

2. In both groups, financial planning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amount of saving. But amount of saving was not significant predictor of financial implementing. Financial implementing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locus of control, in the unemployed wives. For the employed wives, predictors of financial implementing were family income and marriage duration.

3. For the employed wives, the effect of personal and managerial subsystem

on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was greater than unemployed wives.

4. It was found that personal and managerial subsystems had effect on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Thus, the path model designed in this research was found to be proven for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I. 서 론

가계는 재정상태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가계의 재정복지는 효율적인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의 결과로 생기는 자원의 양적인 증대와 가족원의 욕구충족 및 목표달성으로 인한 만족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가정내·외환경요인의 변화로 가계관리자는 가족자원의 획득, 배분, 소비, 저축 및 투자 등 가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가정의 관리자인 주부의 취업은 가정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한 가정 내적 변화의 두드러진 예이다.

현재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여, 1995년에는 48.3%에 이르렀으며 그중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전체여성취업자의 74.8%를 차지하였다(통계청, 1996).

이러한 취업주부의 증가는 핵가족화, 자녀수 감소,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가사노동의 기계화로 인한 가사노동량의 감소 등의 사회환경의 변화와 자아실현의 욕구와 사회적 기여 등의 개인적인 동기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주부의 취업이유가 경제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생계유지', '가계보탬' 등의 이유로 주부가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취업은 가정의 빈곤을 해결하거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가정의 실직, 질병, 사망이나 이혼 등과 같은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Heffernan, 1982; 문순채·김혜연, 1995).

그러나 취업주부의 가계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취업주부에 대한 평가는 전업주부와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즉 아직까지도 가부장적 이

데올로기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한 여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여성 스스로의 책임의식으로, 주부의 역할이 확대되어 다중역할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주부에게 있다고 보는 사회적 시각과 개인적인 책임의식이다. 주부의 다중적 역할양립의 어려움은 역할갈등을 초래하여 복지감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역할기대, 시간과 에너지 자원의 제약정도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인적·관리적 하위체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고,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관리자의 주관적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주관적 변인: 통제성향, 생활격차인지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한 가계관리자는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주어진 환경을 자신이나 가계에 유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관리자일수록, 자원사용에 대한 판별력이 높아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하며(Sandler & Lakey, 1982; 김혜정, 1993), 자신이 처한 재정상태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자신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높으며, 앞으로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Danes, Rettig, & Bauer, 1991; Hira, Fitzsimmons, & Bauer, 1993).

생활격차인지는 현재의 생활수준과 바라는 생활수준 즉, 생활표준간의 차이에 대한 인지로서, 이는 불만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Danes & Morris, 1989). Danes & Morris(1989)는 가족이 자신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계획하는 요인으로 소비수준과 소비표준간의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가족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생활수준과 표준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만족은 가정내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동기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Danes(1991)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은 가계관리이론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제 소재,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와 만족에 대한 경로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내적통제가 이 둘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2. 인적 하위체계 변인: 부부 응집성과 적응력

가족응집력은 가족원간의 연결 또는 분리의 정도에 따라 파잉분리, 분리, 연결, 그리고 속박 등의 네 영역으로 분류된다. 순환모델에서의 응집력에 대한 가설은 응집력이 중간정도일 때, 가족의 기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Olson 등, 1983). 가족적응력은 가족원의 변화능력에 따라 경직성, 구조성, 융통성, 그리고 혼돈의 네 영역으로 분류된다. 순환모델에서의 적응력에 대한 가설은 적응력이 중간정도일 때, 부부 또는 가족기능 수행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Olson 등, 1983).

순환모델을 적용시킨 선행연구는 응집성과 적응력간의 관계를 곡선형의 연구결과와 선형의 연구결과로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정상가족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선형의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Beavers & Voeller, 1983; Barnes & Olson, 1985; Fitzsimmons 등, 1991; 김수연·김득성, 1993; Walson & Fitzsimmons, 1993).

Olson등(1983)의 제시한 순환모델의 개념을 가정자원관리체계모델에 적용시킨 연구를 보면, Fitzsimmons 등(1991)은 가족 응집성이 높은 가족일수록 가

족들은 정서적으로 밀접하여, 전체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정자원관리방법을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였다. 이연숙(1996)의 연구한 결과,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은 가족일수록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가정관리행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의해 설명된 부분이 적음을 지적하고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인이 가정관리행동을 더 많은 부분 설명한다고 하여 앞으로의 연구에서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가족체계내의 역동적 요소를 포함시켜야한다고 하였다.

3. 관리적 하위체계 변인: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

가계관리는 한 가계의 제한된 금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써 가족원의 욕구충족 및 목표달성으로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의 재정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계관리자는 가정자원관리체계의 관리적 하위체계내에서 인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한다. 계획행동은 가족의 요구와 자원을 중재하고자 행동의 지침과 순서를 정하는 행동으로서, 관리체계의 효용성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행동을 취하기전에 그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가계관리는 미래의 가계재정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계획행동의 여부는 관리행동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정관리행동은 재정적 목표달성과 자원의 극대화에 영향을 미쳐, 재정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Deacon & Firebaugh, 1988; Titus, Fanslow, & Hira, 1989; 이기영·조영희, 1992).

가계관리의 수행행동은 계획단계에서 결정한 내용을 목표달성을 위해 실천하는 행동과정이며, 가계관리자가 수행행동과정을 통해 현재의 가계재정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계의 재정관리행동을 조정하거나 가계의 재정적 목표를 수정할 수 있으므로, 가계재정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계의 재정복지를 향

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업주부보다는 취업주부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관리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영애·임정빈, 1987; Swift & Hira, 1987; Deacon & Firebaugh, 1988; 이연숙·두경자, 1992).

4. 주관적 재정복지

재정복지는 경제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되기도 하고,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가계의 객관적 재정복지수준은 가계가 처해있는 객관적인 재정상태로서, 일정기간의 화폐소득액, 소비지출액, 총자산, 순자산, 총부채 등의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복지수준으로 측정된다(Strumpel, Curtin, & Schwartz, 1976; Winter, Morris, & Rubio, 1988; Ackerman & Paolucci, 1983).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주관적 복지수준은 가족이나 가계관리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복지수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득적정도인지, 자원적정도인지, 재정적 안정도 인지, 생활표준과 생활수준간의 차이 인지, 재정상태에 대한 향상감,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Titus, Fanslow, & Hira, 1989; 김연정, 1991; 고보선·임정빈, 1992; 김민정, 1994; 고보선, 1996).

Campbell 등(1976)은 재정복지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보다 자원에 대한 개인의 만족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여, 경제적 복지를 연구함에 있어서 주관적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ndrew와 Withey(1976)는 복지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삶을 보는 시각을 절대적 복지수준, 상대적 복지수준, 그리고 변화와 관련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재정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및 미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가계재정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바람직한 주관적 측정방법이다. 서리나·한경미(1994)은 가족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자체의 양보다 가족자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지각이 필요

하며, 관리자의 자원에 대한 적정도 지각에 따라 관리행동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주관적인 인식과 지각이 관리행동을 발전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인적 하위체계 요소와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주관적 재정복지는 관련변인들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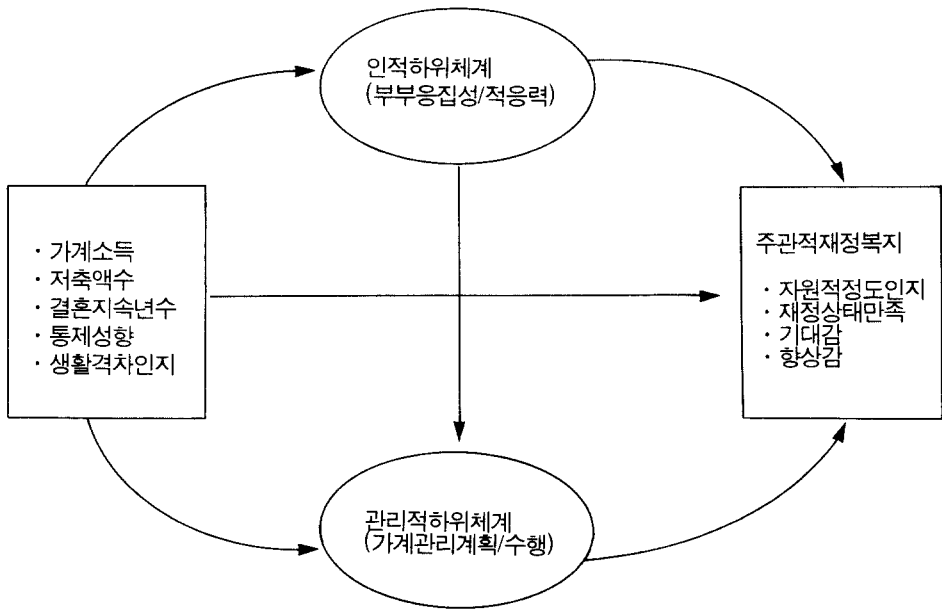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 자녀 이상을 둔 가계에 가계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주부로 한정시켰다. 예비조사는 1996년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는 1996년 5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662부가 본 연구의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3. 조사도구

1) 통제성향 척도

통제성향 척도는 Rotter(1966)와 Hira 등(1993)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내적 통제성향과 외적 통제성향으로 구분하여 5점 Likert 척도의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리자는 재정상태에 대한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702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생활격차인지 척도

생활격차인지 척도는 “현재 우리가정의 생활수준과 내가 바라는 생활수준간에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관리자의 생활격차인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인적 하위체계 척도

인적 하위체계 척도는 Olson 등(1982)의 FACES 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척도를 기초로, 부부 응집성과 적응력의 각각 6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리자가 인지하는 부부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부부 응집성과 적응력이 각각 .777과 .829이다.

4) 관리적 하위체계 척도

관리적 하위체계는 Godwin & Carroll(1986), Fitzsimmons 등(1993)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가계관리 계획 5개 문항과 가계관리 수행 8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리자는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계획과 수행이 각각 .784와 .766이다.

5) 주관적 재정복지 척도

주관적 재정복지 척도는 Rudd(1986), Danes & Rettig(1993), Hira 등(1989)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자원적정도인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기대감, 그리고 향상감을 5점 Likert 척도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리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재정복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889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2. 인적 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업주부의 인적 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2.1>과 같다. 인적 하위체계에 결혼지속년수($\beta=-.155$)와 생활격차인지($\beta=-.213$)가 부적인 영향력을, 통제성향($\beta=.160$)이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집 단	전업주부	취업주부
		N(%)	N(%)
가계소득	≤ 150	88(22.1)	29(11.2)
	150 < ≤ 200	93(23.3)	45(17.4)
	200 < ≤ 300	109(27.3)	83(32.2)
	300 <	109(27.3)	101(29.1)
	평균	286.60만원	330.39만원
저축액수	없다	53(13.4)	15(5.9)
	≤ 30	78(19.8)	31(12.1)
	30 < ≤ 60	122(30.9)	56(21.8)
	60 < ≤ 90	46(11.6)	35(13.8)
	90 < ≤ 120	48(12.1)	57(22.3)
	120 < ≤ 150	15(3.8)	26(10.1)
	150 <	33(8.4)	36(14.3)
평균	65.60만원	95.11만원	
결혼지속년수	≤ 10	114(28.6)	100(38.8)
	10 < ≤ 20	97(24.3)	74(28.7)
	20 < ≤ 30	150(37.6)	68(26.4)
	30 <	38(9.5)	16(6.2)
	평균	18.52년	14.88년
통제성향		3.46(.99) ^a	3.55(.98) ^a
생활격차인지 ^b		2.77(1.05)	2.71(1.04)
인적 하위체계		3.28(.68)	3.69(.73)
부부 응집성		3.76(.73)	3.74(.77)
부부 적응력		3.59(.73)	3.62(.78)
관리적 하위체계		3.70(.59)	3.66(.64)
계획		3.73(.71)	3.79(.72)
수행		3.66(.64)	3.53(.73)
주관적 재정복지		3.41(.66)	3.48(.67)
자원적정도인지		3.28(.69)	3.33(.76)
재정상태만족		2.84(.81)	2.83(.85)
재정상태기대		3.89(.95)	4.01(.96)
재정상태향상		3.65(1.06)	3.69(1.10)

주: 전업주부: N=399, 취업주부: N=258

a: 각 변인의 구성항목을 모두 조합하여 5점척도로 환산한 평균(표준편차).

b: 점수가 낮을수록 생활격차를 높게 인지함을 의미.

며,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분산의 약 9%를 설명하였다. 즉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를 인지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관리자가 인지한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 정도가 높았다. 독립변인 중 인적 하위체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생활격차인지로 나타났다.

앞으로 발생가능한 가정내·외상황에 관리자가 대처·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축적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부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 부부 응집성에는 결혼지속년수가, 부부 적응력에는 저축액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결혼초기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결혼생활을 위

〈표 2.1〉 인적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전업주부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부 응집성		부부 적응력	
	b	β	b	β	b	β
가계소득	.033	.025	.050	.036	-7.148E-05	-5.168E-05
저축액수	5.908E-04	.056	6.791E-04	.060	6.841E-04	.062
결혼지속년수	-.010	-.155**	-.009	-.130*	-.012	-.171***
통제성향	.110	.160**	.089	.122*	.131	.180***
생활격차인지	-.141	-.213***	-.127	-.179***	-.151	-.215***
	N=356 SEE=.663 F=7.186*** R ² =.093 D-W=1.928		N=361 SEE=.715 F=5.096*** R ² =.067 D-W=1.915		N=365 SEE=.698 F=8.163*** R ² =.102 D-W=1.944	

주: * P<.05 ** P<.01 *** P<.001

전업주부의 경우, 부부 응집성과 적응력에 대하여 결혼지속년수와 생활격차인지가 부적인 영향력을, 통제성향이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생활격차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 관리자가 현재의 생활수준과 바라는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적게 인지하는 것은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취업주부의 인적 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2.2〉와 같다. 인적 하위체계에 결혼지속년수(β = -.139)만이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분산의 약 5%를 설명하였다.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가계 관리자가 부부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의 정도가 높다고 인지하였다. 그리고 저축액수가 많을수록 가계 관리자는 부부간의 적응력 정도가 높다고 인지하였다. 따라서 가계저축은

해 부부간에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여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결혼지속년수가 적을수록 부부 응집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한편 저축액수는 시간과 에너지 자원의 제약을 받고 있는 취업주부에게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이므로 부부 적응력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적 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볼 때,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공통점은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관리자가 인지한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인적 하위체계에 통제성향과 생활격차인지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전업주부는 가계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여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내적 통제의 성향을 보이며, 현재의 생활수준과 바라는 생활수준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을 높게 인지함을 알 수 있다.

〈표 2.2〉 인적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취업주부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부 응집성		부부 적응력	
	b	β	b	β	b	β
가계소득	.091	.060	.168	.104	-.026	-.016
저축액수	.001	.134	.001	.101	.002	.164*
결혼지속년수	-.010	-.139*	-.013	-.168**	-.006	-.079
통제성향	.038	.051	.020	.025	.033	.041
생활격차인지	-.004	-.005	-.025	-.034	.025	.034
	N=234 SEE=.720 F=2.340* R ² =.049 D-W=2.149		N=239 SEE=.761 F=2.686* R ² =.055 D-W=2.114		N=238 SEE=.771 F=2.736 R ² =.046 D-W=2.073	

주: * P<.05 ** P<.01

3. 관리적 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전업주부의 관리적 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3.1〉과 같다. 관리적 하위체계에 통제성향(β =.211)만이 유일하게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분산의 약 5%를 설명하였다. 즉 내적 통제의 성향을 지닌 관리자일수록 효과적인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을 하였다.

있어 가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계관리 수행에 대하여는 통제성향(β =.189)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계획한 관리행동을 실천하는 경우 가계 관리자가 현재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내적인 통제성향이 강할수록 효과적인 가계관리 수행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 통제성향은 더 나은 재정상태를 만들기

〈표 3.1〉 관리적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전업주부

독립변인	종속변인		관리적하위체계		가계관리계획		가계관리수행	
	b	β	b	β	b	β	b	β
가계소득	-.017	-.015	-.084	-.063	.038	.032		
저축액수	5.302E-04	.060	.002	.142*	-4.678E-04	-.049		
결혼지속년수	-3.090E-04	-.006	-.001	-.018	4.633E-04	.008		
통제성향	.123	.211***	.140	.199***	.119	.189***		
생활격차인지	.028	.051	.006	.009	.049	.081		
	N=364 SEE=.570 F=3.892** R ² =.052 D-W=1.815		N=369 SEE=.685 F=4.723*** R ² =.061 D-W=1.768		N=366 SEE=.619 F=3.084** R ² =.041 D-W=1.912			

주: * P<.05 ** P<.01 *** P<.001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 중 저축액수가 많을수록, 관리자가 내적통제의 성향을 보일수록, 가계 관리자는 효과적으로 가계관리 계획을 하였다. 즉 저축액수는 현재의 제한된 가계소득 자원에 융통성을 제공할 수

위한 적극적인 관리행동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관리적 하위체계의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통

제성향으로 나타나, 가계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가계 관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내적인 통제성향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다.

취업주부의 관리적 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3.2>와 같다. 관리적 하위체계에 가계소득($\beta=-.277$)은 부적의 영향력을, 저축액수($\beta=.166$)는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분산의 약 6%를 설명하였다. 즉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저축액수가 많을수록, 가계 관리자는 효과적인 관리행동을 보였다.

에 저축액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가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및 에너지 자원이 한정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관리적 하위체계의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 계획과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며, 특히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와는 달리 이러한 요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관리적 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

<표 3.2> 관리적하위체계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취업주부

독립변인 \ 종속변인	관리적하위체계		가계관리계획		가계관리수행	
	b	β	b	β	b	β
가계소득	-.376	-.277***	-.337	-.221**	-.413	-.264***
저축액수	.001	.166*	.002	.209**	9.237E-04	.094
결혼지속년수	.008	.115	-6.573E-04	-.009	.016	.206**
통제성향	.049	.074	.110	.148*	-.007	-.009
생활격차인지	.008	.012	.045	.064	-.032	-.046
	N=239 SEE=.634 F=3.061** R ² =.062 D-W=1.914		N=243 SEE=.711 F=3.331** R ² =.066 D-W=1.988		N=240 SEE=.722 F=3.895** R ² =.077 D-W=1.864	

주: * P<.05 ** P<.01 *** P<.001

가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저축액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관리자가 내적통제의 성향을 지닐수록, 관리자는 효과적인 가계관리 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관리 계획에 대한 가계소득과 저축액수의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보다 가족원의 욕구와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반면 저축액수는 현재의 제한된 가계소득 자원에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어 가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가계 관리자는 효과적으로 가계관리행동을 수행하였다. 가계관리 계획에서와는 달리 가계관리 수행

향력을 볼 때,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공통점은 저축액수는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 중 계획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수행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축액수는 관리행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자원의 융통성과 이용가능성을 확대시켜 줄 수 있어서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나, 실제로 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는 저축액수보다 다른 요인이 관리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전업주부의 경우는 관리자가 내적 통제성향이 강할수록, 취업주부의 경우는 가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관리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두 집단의 차이점은 취업주부는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에 가계소득이 부적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전

업주부는 통제성향이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이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전업주부는 가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으로 인한 내적 통제의 성향이, 취업주부는 시간·에너지·금전자원 제약의 원인이 되는 낮은 가계소득 수준이 효율적인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을 하도록 자극하게 된다.

4.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전업주부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4.1>과 같다. 주관적 재정복지에 가계소득($\beta=.159$), 저축액수($\beta=.127$), 통제성향($\beta=.226$)이 정적인 영향력을, 결혼지속년수($\beta=-.136$)와 생활격차인지($\beta=-.295$)가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분산의 약 22%를 설명하였다. 가계소득과 저축액수가 많을수록, 내적통제의 성향을 지닐수록,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그리고 생활수준과 표준간의 격차를 적게 인지할수록, 관리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이 높았다.

족수준이 높았다. 한편 저축액수는 자원적정도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자가 현재의 생활수준과 바라는 생활수준간의 차이를 적게 인지할수록, 관리자가 느끼는 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이 높았다.

재정상태 향상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객관적 요소인 가계소득과 저축액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주관적 요소인 통제성향과 생활격차인지는 각각 유의미한 정적,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즉 관리자가 과거보다 현재의 재정상태가 더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가계소득과 저축액수의 증가에 의해서 보다는 관리자가 내적 통제의 성향이 강하고 생활수준과 표준간의 차이를 적게 인지하는 데 좌우되었다.

취업주부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4.2>와 같다. 주관적 재정복지에 저축액수($\beta=.208$), 통제성향($\beta=.205$)이 정적인 영향력을, 생활격차인지($\beta=-.211$)가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표 4.1> 주관적재정복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전업주부

종속변인 독립변인	주관적재정복지		자원적정도인지		재정상태만족		재정상태기대		재정상태향상	
	b	β	b	β	b	β	b	β	b	β
가계소득	.195	.159**	.206	.160**	.270	.177**	.112	.061	.192	.097
저축액수	.001	.127*	.001	.146**	8.336E-04	.066	.001	.089	.002	.096
결혼지속년수	-.008	-.136**	-.002	-.024	8.798E-04	.011	-.029	.319***	-.006	-.057
통제성향	.147	.226***	.169	.248***	.145	.182***	.016	.017	.267	.256***
생활격차인지	-.184	-.295***	-.180	-.275***	-.299	-.386***	-.140	-.151**	.122	-.121*
	N=347 SEE=.576 F=19.467*** R ² =.222 D-W=1.946		N=359 SEE=.603 F=20.819*** R ² =.228 D-W=1.983		N=360 SEE=.692 F=24.962*** R ² =.261 D-W=1.971		N=370 SEE=.901 F=10.557*** R ² =.127 D-W=1.754		N=370 SEE=.995 F=8.937*** R ² =.109 D-W=2.095	

주: * P<.05 ** P<.01 *** P<.001

주관적 재정복지의 요소 중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내적통제의 성향을 지닐수록, 현재의 생활수준과 바라는 생활수준간의 차이를 적게 인지할수록, 관리자는 자원을 적정하다고 인지하고 재정상태에 대한 만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분산의 약 21%를 설명하였다. 저축액수가 많을수록, 내적통제의 성향을 지닐수록, 그리고 생활수준과 표준간의 격차를 적게 인지할수록, 관리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재정복지 수

〈표 4.2〉 주관적재정복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취업주부

종속변인 독립변인	주관적재정복지		자원적정도인지		재정상태만족		재정상태기대		재정상태향상	
	b	β	b	β	b	β	b	β	b	β
가계소득	.186	.132	.416	.259***	.360	.203**	-.091	-.045	.059	.026
저축액수	.002	.208**	.001	.106	.002	.199**	.002	.182*	.002	.132
결혼지속년수	-.007	-.107	-.003	-.035	.004	.045	-.028	-.282***	-.004	-.033
통제성향	.141	.205***	.144	.184**	.079	.091	.160	.161**	.156	.140*
생활격차인지	-.136	-.211***	-.140	-.189**	-.274	-.340***	-.063	-.068	-.122	-.116
	N=228 SEE=.603 F=11.598*** R ² =.207 D-W=1.754		N=239 SEE=.689 F=12.115*** R ² =.206 D-W=1.915		N=234 SEE=.703 F=21.434*** R ² =.320 D-W=1.850		N=244 SEE=.917 F=6.905*** R ² =.127 D-W=2.063		N=242 SEE=1.066 F=3.205*** R ² =.064 D-W=1.753	

주: * P<.05 ** P<.01 *** P<.001

준이 높았다.

주관적 재정복지는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생활수준과 표준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관리자는 자원을 적정하다고 인지하며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았다. 한편 자원적정도인지에는 통제성향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는 통제성향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저축액수가 많을수록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았으나, 자원적정도인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에는 저축액수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가계소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가계소득의 유량(flow)의 개념과 저축의 저장(stock)의 개념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즉 저축액수는 앞으로의 재정상태의 자원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적은 사람은 연령이 많은 사람보다 자원에 대한 요구와 열망수준이 높아서 미래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 이러한 재정상태에 대한 높은 기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재정상태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수준과 표준간의 차이를 적게 인지할수록, 관리자는 자원이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정하

다고 인지하며, 현재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재정상태 향상에는 객관적 요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주관적 요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전업주부의 경우 통제성향과 생활격차인지가 재정향상감을 갖게 하였고, 취업주부의 경우는 통제성향이 관리자가 느끼기에 재정상태가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고 인지하도록 하였다.

전업주부의 경우 자원적정도인지에는 저축액수가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취업주부의 경우 저축액수는 자원적정도인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업주부는 주관적 재정복지의 모든 하위변인에 생활격차인지가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나, 취업주부의 경우는 자원적정도인지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5. 주관적 재정복지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주관적 재정복지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5.1〉).

전업주부의 주관적 재정복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표 5.1〉 제변인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1) 가계소득	1.000							
(2) 저축액수	.479*** (.584***)	1.000						
(3) 결혼지속년수	.164** (.159**)	.018 (-.044)	1.000					
(4) 통제성향	-.041 (.002)	.102 (-.004)	-.010 (.216***)	1.000				
(5) 생활격차인지	.230*** (.172**)	.137** (.278***)	.106 (.049)	-.034 (-.032)	1.000			
(6) 인적하위체계	.019 (.120)	.092 (.177**)	-.133** (-.116)	.178*** (.025)	.190** (.030)	1.000		
(7) 관리적하위체계	.021 (-.172**)	.112 (-.002)	.010 (.097)	.214*** (.075)	.057 (.015)	.435*** (.319***)	1.000	
(8) 주관적재정복지	.210*** (.264***)	.257*** (.353***)	-.073 (-.035)	.211*** (.154)	-.331*** (-.283***)	.293*** (.356***)	.242*** (.368***)	1.000

주: ** P<.01 *** P<.001 전업주부 N=309, 취업주부 N=240. (): 취업주부

는 〈표 5.2〉와 같다. 첫 번째 회귀식은 인적 하위체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지속년수($\beta=-.155$)와 생활격차인지($\beta=-.213$)가 부적인 영향력을, 통제성향($\beta=.160$)이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인적 하위체계 분산의 약 9%를 설명하였다. 즉 결혼지속년수가 짧고,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낮게 인지하며, 재정상태에 대하여 내적통제성향을 지닌 가계관리자일수록,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 정도가 높고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적응능력이 높았다.

두 번째 회귀식은 관리적 하위체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성향($\beta=.144$)과 인적 하위체계($\beta=.411$)가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관리적 하위체계 분산의 약 21%를 설명하였다. 즉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고, 관리자가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할수록, 가계 관리자는 계획과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회귀식은 주관적 재정복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격차인지

($\beta=-.264$), 통제성향($\beta=.176$), 가계소득($\beta=.160$), 인적 하위체계($\beta=.129$), 결혼지속년수($\beta=-.120$), 그리고 관리적 하위체계($\beta=.118$)의 순으로 모든 독립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가계소득 수준이 높고, 결혼지속년수가 짧으며, 내적 통제성향을 보이며, 생활격차인지 수준이 낮으며,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고,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수록, 가계관리자는 재정복지수준을 높게 인지하였다. 특히 주관적 재정복지를 결정하는 예측인자 중 생활격차인지 변인은 주관적 재정복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따라서 가계 관리자의 주관적인 재정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족원의 욕구와 가족의 목표에 적절한 자원배분을 함으로써 현재의 생활수준과 바라는 생활수준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주부의 주관적 재정복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5.3〉과 같다. 첫 번째 회귀식은 인적 하위체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지속년수($\beta=-.139$)만이 유일하게 부적인 영

〈표 5.2〉 주관적 재정복지의 중다회귀분석: 전업주부

독립변인 \ 종속변인	인적하위체계		관리적하위체계		주관적재정복지	
	b	β	b	β	b	β
가계소득	.033	.025	-.016	-.014	.200	.160**
저축액수	5.908E-04	.056	3.430E-04	.038	9.978E-04	.097
결혼지속년수	-.010	-.155**	.003	.059	-.007	-.120*
통제성향	.110	.160**	.084	.144**	.117	.176***
생활격차인지	-.141	-.213***	-.024	-.042	-.165	-.264***
인적하위체계	.	.	.345	.411***	.123	.129*
관리적하위체계131	.118*
	N=356 SEE=.663 F=7.186*** R ² =.093 D-W=1.928		N=349 SEE=.526 F=14.681*** R ² =.205 D-W=1.842		N=331 SEE=.570 F=16.462*** R ² =.263 D-W=1.982	

주: * P<.05 ** P<.01 *** P<.001

〈표 5.3〉 주관적 재정복지의 중다회귀분석: 취업주부

독립변인 \ 종속변인	인적하위체계		관리적하위체계		주관적재정복지	
	b	β	b	β	b	β
가계소득	.091	.060	-.438	-.323***	.301	.211**
저축액수	.001	.134	.001	.143	.001	.136*
결혼지속년수	-.010	-.139*	.013	.195**	-.008	-.118*
통제성향	.038	.051	.019	.029	.111	.160**
생활격차인지	-.004	-.005	-.014	-.023	-.135	-.209***
인적하위체계	.	.	.326	.370***	.163	.175**
관리적하위체계364	.348***
	N=234 SEE=.720 F=2.340*** R ² =.049 D-W=2.149		N=229 SEE=.584 F=9.263*** R ² =.200 D-W=1.937		N=218 SEE=.540 F=18.453*** R ² =.381 D-W=1.858	

주: * P<.05 ** P<.01 *** P<.001

향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인적 하위체계 분산의 약 5%를 설명하였다. 즉 가계 관리자의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관리자가 인지한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 정도가 높고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적응능력이 높았다.

두 번째 회귀식은 관리적 하위체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지속년수 ($\beta=.195$)와 인적 하위체계 ($\beta=.370$)가 정적인 영향력을, 가계소득 ($\beta=-.323$)이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관리적 하위체계 분산의 약 20%를 설명하였다. 즉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계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관리자는 가계 관리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세 번째 회귀식은 주관적 재정복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리적 하위체계 ($\beta=.348$), 가계소득 ($\beta=.211$), 생활격차인지 ($\beta=-.209$), 인적 하위체계 ($\beta=.175$), 통제성향 ($\beta=.160$), 저

축약수($\beta=.136$), 그리고 결혼지속년수($\beta=-.118$)의 순으로 모든 독립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가계소득 수준과 저축액수가 높고, 결혼지속년수가 짧으며, 내적 통제성향을 보이며, 생활격차인지 수준이 낮으며,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고, 가계관리 계획과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수록, 가계관리자는 재정복지수준을 높게 인지하였다. 특히 주관적 재정복지를 결정하는 예측인자 중 관리적 하위체계 변인은 주관적 재정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자원제약에 놓여있는 취업주부는 주관적인 재정복지 향상은 효율적인 관리행동에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주관적 재정복지의 중다회귀분석을 살펴보았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았다. 이는 두 집단 모두 결혼 초기의 부부간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인적 하위체계는 관리적 하위체계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인적·관리적 하위체계는 주관적 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인과모형이 입증되었다.

전업주부의 경우 인적 하위체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결혼지속년수외에 통제성향과 생활격차인지로 나타났다. 즉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할수록, 생활수준과 표준간의 차이를 적게 인지할수록 관리자는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게 인지하였다. 관리적 하위체계에 대한 예측인자가 전업주부의 경우는 통제성향이 정적인 영향력을, 취업주부는 가계소득과 결혼지속년수가 각각 부적,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주관적 재정복지의 예측인자는 취업주부의 경우 관련변인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경우 저축액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관적 재정복지의 예측인자 중 인적·관리적 하위체계의 영향력은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가 더 컸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인적 하위체계 요소가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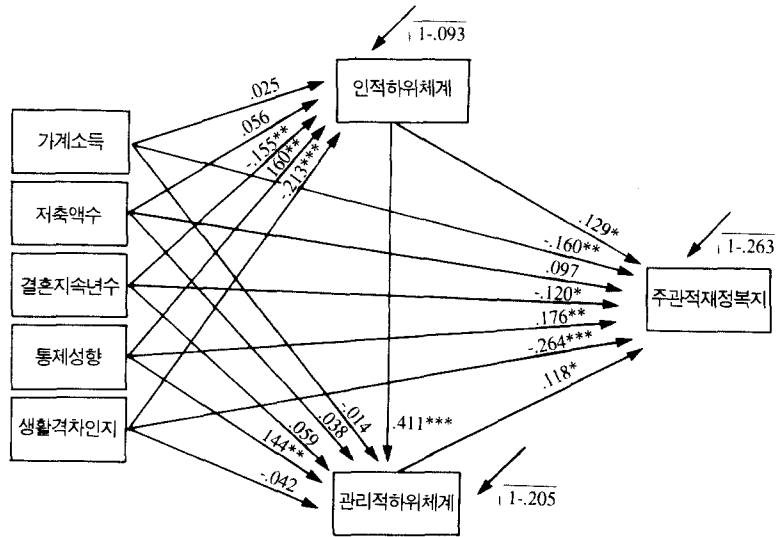
주관적 재정복지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취업주부의 경우는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가 인적 하위체계 요소보다 주관적 재정복지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주관적 재정복지의 예측인자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전업주부의 경우 생활격차인지이며, 취업주부는 관리적 하위체계가 주관적 재정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6. 주관적 재정복지의 인과모형

전업주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림 2>와 같은 주관적 재정복지의 인과모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인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를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표 6.1>).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효과를 살펴보면, 생활격차인지, 인적 하위체계, 저축액수, 관리적 하위체계, 통제성향, 가계소득, 결혼지속년수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생활격차인지는 비인과 효과가 -.025로 본 연구모형에 의해 분석되지 못하지만, 주관적 재정복지에 .264의 직접효과와 .032의 간접효과를 보여 총 인과 효과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인과효과가 큰 변인은 통제성향으로 .176의 직접효과와 .046의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여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총인과 효과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성향은 주관적 재정복지의 결정요인으로 직접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매개효과를 경유한 간접효과와 정적인 영향력도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결혼지속년수는 -.120의 직접효과와 -.021의 간접효과와 직접·간접효과 모두 부적인 영향력으로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총인과 효과를 증가시켰으나, 나머지 공변량 .068은 설명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가계소득은 .160의 유의미한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간접효과가 .002로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였으나, 총인과 효과를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전업주부의 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생활격차인지이



〈그림 2〉 주관적 재정복지의 인과모형: 전업주부

〈표 6.1〉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에서의 공변량 분해: 전업주부

변 인	인과효과		총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계소득	.160**	.002	.162	.048	.210
저축액수	.097	.014	.111	.146	.257
결혼지속년수	-.120*	-.021	-.141	.068	-.073
통제성향	.176***	.046	.222	-.011	.211
생활격차인지	-.264***	-.042	-.306	-.025	-.331
인적하위체계	.129*	.048	.177	.116	.293
관리적하위체계	.118*	.	.118	.124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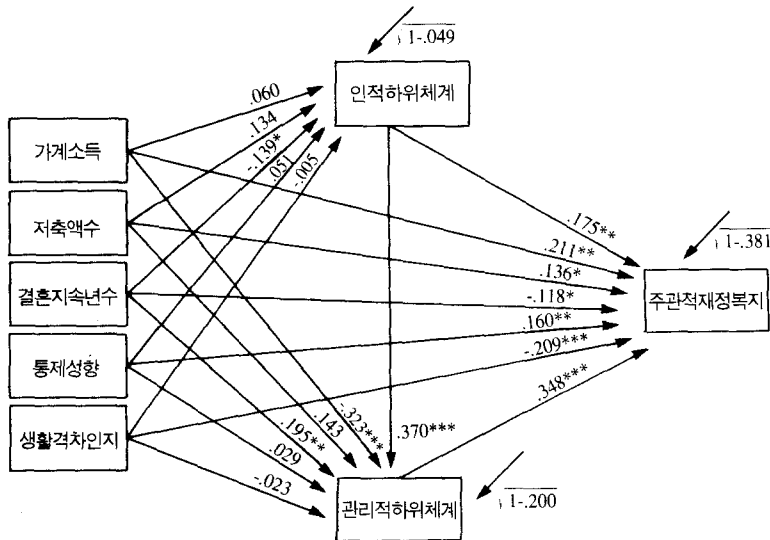
주: * P<.05 ** P<.01 *** P<.001

며, 그 다음으로 통제성향, 가계소득, 인적 하위체계, 결혼지속년수, 그리고 관리적 하위체계 등의 순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주관적 재정복지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인 변인은 가계소득, 통제성향, 생활격차인지, 인적 하위체계로,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할수록 생활수준과 표준간의 차이를 적게 인지할수록, 가계 관리자가 인지한 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을 향상

시켰다.

취업주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림 3〉과 같은 주관적 재정복지의 인과모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인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를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표 6.2〉).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효과를 살펴보면, 관리적 하위체계, 인적 하위체계, 저축액수, 생활격



〈그림 3〉 주관적 재정복지의 인과모형: 취업주부

〈표 6.2〉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에서의 공변량 분해: 취업주부

변 인	인과효과		총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계소득	.211***	-.093	.118	.146	.264
저축액수	.136*	.090	.226	.127	.353
결혼지속년수	-.118*	.026	-.092	.057	-.035
통제성향	.160**	.026	.186	-.032	.154
생활격차인지	-.209***	-.010	-.219	-.064	-.283
인적하위체계	.175**	.129	.304	.052	.356
관리적하위체계	.348***	.	.348	.020	.368

주: * P<.05 ** P<.01 *** P<.001

차인지, 가계소득, 통제성향, 그리고 결혼지속년수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관리적 하위체계는 비인과 효과가 .052로 본 연구모형에 의해 분석되지 못하지만, 주관적 재정복지에 .348의 직접효과로 총인과 효과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인과효과가 큰 변인은 인적 하위체계로 .175의 직접효과와 .129의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여 총인과 효과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인적 하위체계는 주관적 재정복지의 결정요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

리적 하위체계의 매개효과를 경유한 간접효과와 정적인 영향력도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저축액수와 통제성향은 각각 .136과 .160의 직접효과와 .090과 .026의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여 총인과 효과를 증가시켰으나, 비인과 효과가 각각 .127과 -.032로 본 연구모형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가계소득은 .211의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093의 부적인 간접효과로 총인과 효과를 감소시켰다. 생활격차인지는 직접효과 -.209와 -.010 간접효과로 부적인 영향력의 총인과 효과

증가시켰다.

이상을 요약하면 취업주부의 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관리적 하위체계이며, 그 다음으로 가계소득, 생활격차인지, 인적 하위체계, 통제성향, 저축액수, 그리고 결혼지속년수 등의 순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정적인 간접효과로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총인과 효과를 증가시킨 변인은 저축액수, 통제성향, 그리고 인적 하위체계로, 저축액수가 많을수록, 내적 통제 성향이 강할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 관리자가 인지한 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관리적 하위체계를 경유하여 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을 향상시켰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았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인적 하위체계에 통제성향과 생활격차인지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전업주부의 경우는 가계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여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내적 통제 성향을 보였으며, 현재의 생활수준과 바라는 생활수준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때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은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 중 저축액수는 관리행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원의 융통성과 이용가능성을 확대시켜 줄 수 있어서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나, 실제로 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는 저축액수보다 다른 요인이 관리수행에 작용하였다. 즉 전업주부의 경우는 관리자가 내적 통제성향이 강할수록, 취업주부의 경우는 가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관리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연령이 적은 사람은 연령이 많은 사람보다 자원에 대한 요구와 열망수준이 높아서

앞으로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 이러한 재정상태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은 환경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재정상태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으로 미래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다.

넷째, 전업주부의 경우는 통제성향이 크고 생활격차를 덜 인지할수록 재정상태가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고 인지하였다.

다섯째, 전업주부의 경우 인적 하위체계 요소가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보다 주관적 재정복지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취업주부의 경우는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가 인적 하위체계 요소보다 주관적 재정복지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여섯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을 경유한 간접효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과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을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직업지위를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취업주부의 직업지위는 시간·금전·에너지 자원의 융통성 정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직업지위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의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통하여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주관적 재정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에 따라 주관적 재정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원의 요구와 자원에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행동과 인식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주기 단계별 관리자의 주관적 재정복지 변화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 1) 고보선·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 2) _____(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제와 가계재정복지,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_____·이영호·임정빈(199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45-58.
- 4)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의사소통과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5)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6) 김민정(1994).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문숙재·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3(4), 39-53.
- 8) 안영애·임정빈(1987). “가정의 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 5, 249-275.
- 9) 이승신 외(1996).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 10) 이연숙(1996). “가족체계내의 역동성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4(4), 295-307.
- 11)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Danes, S.M. & Morris, E.W.(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3), 205-215.
- 13) Danes, S.M. & Rettig, K.D.(1993).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65-389.
- 14) Danielewicz, A.J.(1978). “Determinants of the wife’s perception of income adequac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15)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Allyn & Bacon.
- 16) Fitzsimmons, V.S., Hira, T.K., Bauer, J.W., & Hafstrom, J.L.(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3.
- 17) _____, Hafstrom, J.L., & Im Jeong-Bin(1991).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계의 재정관리행동: Deacon & Firebaugh 모델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81-94.
- 18) Godwin, D.D. & Carroll, D.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ur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19) Hafstrom, J.L. & Dunsing, M.M.(1973). “Level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2), 119-132.
- 20) Hira, T.K., Fitzsimmons V.S., Hafstrom, J.L., & Bauer, J.W.(1993). “Factors Associated with Expectation of Household’s Future Financial Condi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37-256.
- 21)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L., Larsen, A.S., Muxen, M.J., & Wilson, M.A. (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Sag.
- 22) Rotter, J.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 23) Rowland, V.T., Dodder, R.A., & Nickols, S.Y. (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218-225.
- 24) Sumarwan, U. & Hira, T.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3.
- 25) Titus, P.M., Fanslow, A.M., &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26) Walson, C.O. & Fitzsimmons, V.S.(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193-214.
- 27) Williams, F.L. & Berry, R.(1984). “Intensity of Family Disagreement over Finances and Associated Factor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8, 33-53.
- 28) Winter, M., Bivens, G., & Morris, E.W.(1984). “The assessment of subjective change in family financial well-being”, *Family strengths 5: Continuity and Diversity*, 383-398.